

들개 출몰에 쫓기듯 산책... 아찔한 서구

“산책 중에 나타난 들개 무리가 짖어 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들개가 자주 출몰한다는 인천 서구 백석동 골막산 인근 거리.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활보하는 들개 무리로 인해 이 주변에서 산책하는 주민과 등하교 하는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 동네 산책 중에 들개를 목격했다는 서구 백석동 주민 김모(32)씨는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대로변에서 마주친 들개 3마리가 흥분해 쫓기 시작했다. 위협을 느껴 황급히 도망쳤다”고 아찔했던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지난 여름에는 큰 들개가 인근 한 중학교 앞에 나타나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원·대로변 유기견들에 주민 걱정

올해 區 관련 민원만 219건 달해

포획틀 설치해도 개체수는 여전

학교 경비원 김모(74)씨는 “학생들이 등교할 시간인데 대형견 1마리가 학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 몸으로 막아섰다”며 “다행히 들개가 달려들지 않아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담당 구청인 인천 서구에 접수된 들개 관련 민원은 219건에 달한다. 이 들개들은 검단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지역 내 공장지대와 주택가에서 버려진 유기견들로, 인근 야산 등지에서 무리를 지어 사는 것으

로 보인다.

서구는 경서동 주택가, 왕길동 야산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포획틀을 설치해 들개를 잡고 있지만, 개체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고민이다. 2022년 62마리, 지난해 115마리, 올해는 8월까지 벌써 92마리가 포획됐다.

다행히 물림 사고 등 직접적 피해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0kg이 넘는 중·대형견들로 이뤄진 들개 무리가 주택가 인근 공원과 대로변 등에서 자주 출몰해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

호신용으로 항상 등산스틱을 챙긴다는 주민 이모(63)씨는 “인근 할매산을 자주 오르는데 등산로에서 들개가

이동하는 걸 봤다”며 “높지 않은 산이라 등산스틱이 굳이 필요 없는데, 들개가 달려들까 봐 최근에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구 불로동에 사는 윤지애(41)씨는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인근에서 들개 무리를 볼 때가 있어 걱정된다”며 “동네 공원까지 들개들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 밤에는 아이를 혼자 내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구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관련 예산을 늘려 포획틀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들개 발견 시 행동 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만들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서 서구의 한 근린공원에서 들개 두마리가 배회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